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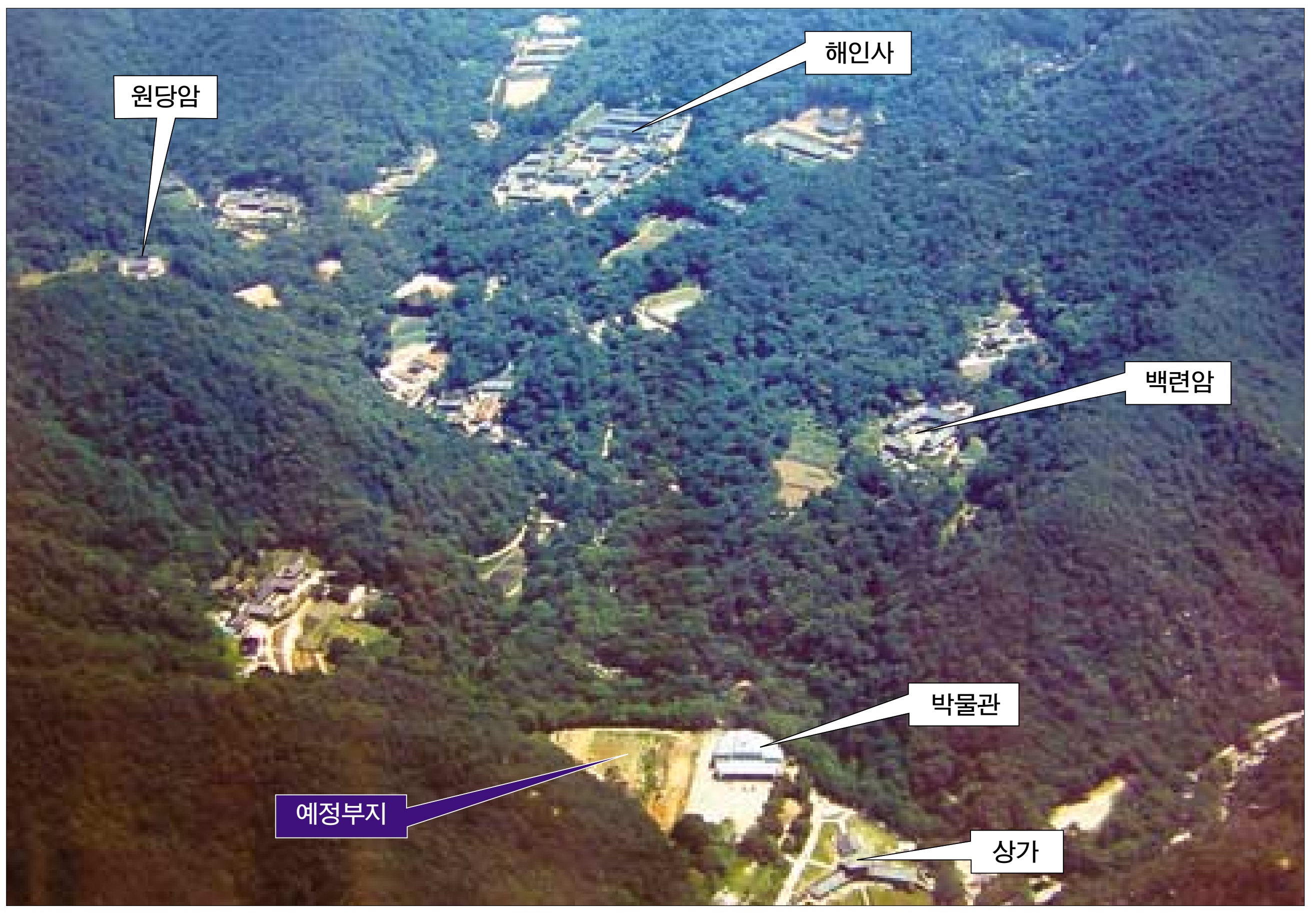
사방세계
十方世界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지난해 12월 28일 해인사 성보박물관 앞 도량 건립 부지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건축가들로 발디딜틈이 없었다. 해인사 개산 1200년 만에 제2의 창건에 비유되는 신행문화도량 설계경기 공모전에 참여키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해인사가 수립한 성보박물관 주변 27000여평의 부지에 약 200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신도량 건립계획은 불사의 의와 규모뿐만 아니라 대규모 설계경기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도 세간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도량 건립에 21세기형 공모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올 10월 착공해 2005년 10월 완공예정인 신도량에는 법보공간, 신행공간, 도서관, 회의공간, 다목적공간, 거주공간 편의공간 등이 들어서며 종교적 신성함과 상징성, 창조성, 예술성이 조화롭게 표현된 자연회복과 치유를 강조한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조성된다.



◇항공사진으로 본 가야산 해인사 전경. 신행문화도량 예정부지는 해인사와 주변 암자로 통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신행문화공간 건립 심포지엄에는 500여명의 건축가들이 참석했다.

“짓되 짓지않는, 자연과 하나된 건물”

해인사 신행문화공간 건립 설계경기공모 현장 설명회

수행·법회·탐방 아우른 도량

1차 5~10개 설계 내달말까지 선정
설계경기 거쳐 10월 최종확정·착공

신행문화도량 건립에 경기공모방식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이상해(성균관대)교수는 “해인사가 지금까지 팔만대장경과 해인사 주변의 문화재 등으로 인해 사찰 본연의 기능 외에 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해 사찰 경내는 종교적 도량의 분위기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서 불자들에게조차도 열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이 교수는 “신행문화도량을 통해 스님들에게는 수행공간을, 불자에게는 법회 및 수련을 위한 장소를, 관광객들에게는 불교를 통하여 정신을 순화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탐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행문화도량이 완공되면 이곳은 사부대중의 신행생활을 위한 도량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기존의 해인사는 스님들의 전문 수행공간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도들의 출입이 제한돼 그간 제기돼 왔던 관광객에 의한 수행환경 침해와 문화재 훼손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은 기존도량 출입제한에 대해 “불자들이 해인사를 찾아오더라도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지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원활한 보존을 위해 신도량에 경판고를 조성하고 여기에 실물과 유사한 모조 대장경판을 전시토록 해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장경각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문제가 됐던 33m의 청동대불 조성 계획은 10m상당의 실내불이나 또다른 형태의 신도량 일부분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인사가 설계경기 공모를 계획하게 된 것은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신행문화도량의 설립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완공한 해인사 성보박물관 또한 그러한 과정의 하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신행문화도량 건립논의는 지난해 여름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건립 진행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0여 차례 걸친 회의와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설계경기방식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다.

26일 오후 5시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모두 86개 팀이 참여한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설계경기는 2월 28일까지 1단계 일반공모를 거쳐 뽑은 5~10개 작품을 대상으로 지명 설계경기를 갖는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따라서 1단계 일반공모에서는 참가자들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방식이 되며, 2단계에서는 실제로 설계 경기를 통해 서로의 실력을 겨루게 된다. 최종 발표는 10월경에 있을 예정이며, 곧바로 건립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또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심사위원 선임에 대해 해인사 원철스님은 “1차 공모가 마감되는 2월 28일께 건축관계자 4인, 스님 2인, 외국 건축가 2인 등으로 구성해 최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로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설명회가 예정부지 현장에서 12월28일 열렸다.

28일 해인사 성보박물관 세미나실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사회자 정기용 교수가 설계경기 기본지침을 전달하자 조용하던 장내가 일순간 술렁거렸다. 기본방침이란 다름 아닌 ‘건물을 지으면서도 짓지 않는, 자연의 지형지물과 하나된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으로 일종의 ‘화두’였기 때문이다.

참가자 대부분은 사찰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런 형이상학적인 지침이 내려지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는 표정이었다.

계속해서 정교수는 “500여년에 걸쳐 자연과 하나되어 어우러지는 해인사가 만들어졌듯 이번 공모전의 주요 목적은 자연환경과 건물의 배치가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해답을 얻고자 함”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지만, 이들의 당혹스런 표정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조건이 주어진 건축공모 관행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주문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개인 건축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가 조성용(58 · 서울 양재동)씨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물을 설계하고 세우는 것은 건축가로서는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기에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합천= 박원구기자 bak09@buddhapia.com

“승가와 재가가 합일된 공간이어야”

신행문화공간 건립 심포지엄 500여 건축가 참여

◇김봉렬 교수

◇유홍준 교수

◇이상해 교수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심포지엄에서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화엄사상과 불교건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화엄의 세계는 부분이 곧 전체요, 전체가 곧 부분인 관계성을 뜻한다”면서 “이는 곧 자연과 건축물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상호유대적인 조화 속에서만 바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홍준(명지대) 교수는 ‘시대정신과 불상의 이미지’를 제목으로 한 슬라이드 상영에서 “신라, 고려, 조선시대 불상의 모습이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는 것은 그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요즘 사찰들에서 경쟁적으로 건립하고 있는 대불들은 대부분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불상이 많아,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이상해(성균관대) 교수는 ‘해인사 신행도량 건립의 의의와 목적’에서 “해인사 신행문화도량은 새로운 시대의 사찰 전형을 보여주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현대사찰은 해인사에 건립될 신도량처럼 승가와 재가 모두가 만족하는 합일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